

# 韓조선, 中제치고 7년 만에 '세계 1위'

### 韓, 1~11월 점유율 43%로 1위... 中은 34% 그쳐 업황도 회복세... 세계 발주량 2016년 대비 2배 이상 ↑

한국 조선사들이 올해 수주 실적에서 7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10일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스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은 1~11월 세계 누계선박 발주량인 2600만 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 중 1090만 CGT를 수주해 42% 점유율로 1위를 꿰찼다.

한국은 2015년 이후 3년 만에 연간 수주량 1000만CGT를 9월에 이미 넘어서는 등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은 11월까지 874만CGT를 수주해 점유율 34%에 그쳤다. 조선업황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3년간 1~11월 누계 선박 발주량은 2016년 1200만CGT, 2017년 2377만CGT, 2018년 2600만CGT로 증가하

는 추세다. 극심한 수주 가뭄이던 2016년과 비교하면 2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11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선박 발주량 211만CGT 가운데 중국이 153만CGT(72%)로 가장 많은 일감을 따냈고 한국(30만CGT·14%), 일본(19만CGT·9%)이 뒤를 이었다. 11월 말 기준 전 세계 수주잔량은 7885만CGT로 전월보다 39만CGT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2908만CGT(37%)로 남은 일감이 가장 많았고 한국은 2074만CGT(26%), 일본은 1330만

CGT(17%)로 집계됐다. 수익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신조선가(새로 건조하는 배)지수는 11월 130포인트로 전월과 동일했다. 지수가 100보다 클수록 선가가 많이 올랐다는 의미다. 선종별로 보면 컨테이너선(2만~2만2000TEU)은 1억4900만달러로 전월 대비 150만달러 상승했다. 유조선(VLCC)과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은 가격 변동 없이 각각 9250만달러, 1억8200만달러를 기록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노동조합, 전북농협 여성책임자회 NH아리아가 지난 8일 완주군 봉동면에서 위치한 '다애공동체' 복지시설을 방문, 봉사활동을 했다.

## 전북농협, '다애공동체' 서 복지시설 봉사 활동 펼쳐

전북농협 노동조합(위원장 박병철), 전북농협 여성책임자회 NH아리아(회장 이남기)는 지난 8일 연말 이웃사랑 자원봉사 캠페인을 완주군 봉동면에 위치한 '다애공동체' 복지시설을 방문, 봉사활동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평소 봉사활동의 인연을 맺고 있는 '다애공동체'에 쌀과 생필품을 전달, 청소 등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한, 박병철 노동조합위원장은 산타로 변신,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해 장애

우들에게 웃음의 시간도 선물했다. 전북농협 노동조합, NH아리아는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 매년 정기적으로 사랑의 쌀 나눔, 김장 김치 나눔, 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을 펼쳐며 농촌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 연탄나눔 행사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꾸준히 돕고 있다. 한편, 박병철 위원장, 이남기 회장은 "앞으로도 농협 봉사단을 중심, 지속적인 사랑 나눔 행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떠나는 김동연 "2기 경제팀, 일자리·소득분배 좋은 결과 기대"

### '일관된 메시지·정책적 상상력·공직자 용기' 강조

10일 퇴임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후임인 홍남기 부총리의 임명과 함께 시작하는 '2기 경제팀'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 문제를 잘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제의 어려움이 상시화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어려운 상황을 상세히 알려고 통 분담을 요구하는 인기없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용기도 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 전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일자리와 소득분배 문제를 2기팀에서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떠나는 마당에 2기팀에 충고의 말이나 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1기팀들이 만들어 놓은 토대에 가속을 붙이겠다고 말한 홍 부총리의 말처럼 추진력 있게 잘 해나가리라 믿는다. 제가 어떤 식으로 철언의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 알아서 할 것이다. 후임자를 잘 부탁한다"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아직 많은 국민들의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이 남아 있다"며 "실직의 공포와 구직난에 맞닥뜨린 근로자·청년, 생존의 위기를 느끼는 자영업자, 나아

지지 않는 경영 성과에 늘 걱정을 달고 사는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다. 경제 운영을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간담회 직전 기재부 내부망에 올린 이임사에서 직원들에게 강조한 ▲일관된 메시지 ▲정책적 상상력 ▲공직자 용기에 대해서는 "재임 중에 끊임 없이 저 자신에게 해왔던 얘기다. 개인적으로 이 3가지에 최선을 다했다. 후배들에게도 좀 더 신경썼으면 하는 작은 바람으로 한 말"이라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임사를 통해 "시각의 가장 큰 적(敵)은 불확실성이다.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며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시장은 스스로 사전 대비를 할 수 있다. 투자, 고용, 심지어는 위험부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책의 출발점은 경제 상황과 문제에 대한 객관적 진단"이라며 "그 토대 위에서 일관되고 시장에서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경제 주체들의 경제하려는 동기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또 "정책적 상상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상상력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비전이 나오고 그 비전 속에서 실천력이 나온다. 상상력이 부재하면 기존의 생각과 방식을 따르게 마련이다. 창조적 파괴는 시장에서만이 아니라 정부 안에서도 필요하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형성된 기득권의 틀을 깨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어려움은 상시화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국민들께 그대로 알려주고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인기 없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그는 이어 "경제에 있어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를 극복해야만 가능하다. 경제·사회 문제가 구조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기득권을 허물고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정치권이 중심이 돼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더 가진 경제주체와 사회지도층의 희생과 양보가 절실하다"며 "언론, 노조, 대기업, 지식인들도 동참해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 경제 살 길이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100년 은행으로 성장해 나갈 것"

### 전북은행, 창립 제49주년 기념식... 임직원 500여명 참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10일 전북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제49주년 기념식을 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은 창립기념식을 통해 "전북은행만의 '차별화, 특화된 마케팅 전략, 틈새시장 공략, 확실한 경영환경을 대비한 리스크관리' 등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서민금융 지원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자고 다짐했다. 임용택 전북은행장은 "지난 49

년 동안 전북은행이 있기까지 한결같은 관심과 사랑으로 오랜시간을 함께해준 고객님들과 지역사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50년을 넘어 100년 은행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지난 1969년 창립 이래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계에 대한 금융지원을 적극 확대해 오면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으며 은행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통한 각종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김영태 기자

## 전북농협지역본부,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 후원

### 21가구에 연탄 6411여장 전달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익산군산축협(조합장 서충근)은 10일 익산 왕궁면에서 나눔축산운동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

후원' 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농촌 지역 주민대상, 연탄을 기부하며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특히, 왕궁면사무소에서 21가구를

추천 받아 연탄 6,411여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서충근 익산군산축협조합장은 "축산인들의 정성을 모아 오늘 연탄 나눔 행사를 마련했다"며, "연탄을 전달 받은 신시 지역주민들은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길 바라며 앞으로도 농협은 지역사회에 더 큰 공헌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탄을 전달받은 박성재(여, 왕궁면)는 "요즘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김영태 기자

## OK저축은행 정기예금 추가판매... 6개월에 연2.7%

OK저축은행이 예치기간 6개월에 연 2.7%의 확정금리(세전)를 제공하는 'OK웃나! 정기예금'을 10일부터 추가 판매한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OK저축은행 웃나! 여자프로농구단의 선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앞서 완판됐다. /뉴시스

개인이나 일반 법인 모두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금액은 10만원 이상이다. 판매 한도 1000억원이 소진되면 마감될 예정이다. 가입 희망 고객은 OK저축은행 영업점이나 인터넷·스마트폰 뱅킹, SB톡톡을 이용하면 된다. /뉴시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